

한국어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최정순 배재대학교 교수

- I. 논의의 시작: 배경과 현황
- II.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선행 연구
- III. 교수자 인식 조사 및 결과
- IV. 좋은 교재와 교재 번역
- V. 결론 및 제언

I. 논의의 시작: 배경과 현황

국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사는 그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대별 구분도 하고 한국어교육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기술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는 대개 1945년 광복 이후를 시작점으로 보는데 본격적인,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이 만들어진 1959년이 시작점이다. 이후 1963년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한국어프로그램이 생겼으며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기관의 설립은 1980년대에 와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1880년도에 시작된 일본 동경의 동경외국어학교를 기점으로 하고, 이어서 1897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대학교, 이후 중국 및 미국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의 개설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국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에 비해 한국어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단순한 한국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과학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을 성립시키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한국어교육 교재의 발전 또한 전제한다. 진대연(1999: 408), 이지영(2005: 176-177) 등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재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거의 처음 이루어졌으며¹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활발해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어교육 교재의 개발과 함께 교재에 관한 연구도 급증한다.²

그리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³에 따르면 1864년부터 개발·출판된 한국어교재는 2009년 1월말 현재 33개국 3,399권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짧은 기간에 비해 출간된 교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별, 목적별,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발표는 한국어교육용 교재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에 집중하여 다룰 것이다. 물론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판된 교재들을 살피고 잘 번역된 교재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여러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 중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내 및 중국 내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특히 중국어 번역이 제공되는(혹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제안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 내에서 출간된 한국어교재의 중국 내 번역 출간의 현황을 살피고, 번역 교재가 갖는 장단점을 적시

1 고영근(1971), 허팔복(1973), 장석진(1974) 정도를 꼽을 수 있다.

2 강승혜(2005: 111)에서는 70년대 이후의 교재 관련 연구의 64%가, 이병규 외(2005: 373-377)에서는 61%가, 진대연(2008: 360-365)에서는 79%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비록 5년 전인 2009년에 이루어진 자료지만 언급할 만하다. http://stat.korean.go.kr/policy.do?method=detail&murl=sub05_02

4 국립국어원 제공 보고서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_1-3’(2009)에 따르면 1900년 이전에는 11권, 1901년-1920년 사이 12권, 1921년-1940년 12권, 1941년-1960년 33권, 1961년-1980년 87권, 1981년-1990년 223권, 1991년-1999년 698권, 2000년-2008년 1,486권이 발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고, 번역 출간할 때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선행 연구

1. 한국어 교재 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 교재, 교수법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연구 성과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지난 10년 간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의 동향은 <표 1>과 같다.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학위논문과 전문 학술지 논문을 조사했다.⁶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검색어 “한국어 교재”로 검색되는 석사, 박사 학위논문 및 전문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⁷ 제목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제어와 초록을 참고하였다.

표 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영역 논문 분류

개발, 구성방안		분석, 평가		내용, 단원요소		사(史)적 연구		원격 교육		기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2004	7	6	0	3	0	8	0	1	1	0	1

5 강승혜(2003), 김정은(2005), 이지영(2005), 방성원(2011)의 연구가 있다.

6 학위논문은 2004년과 2014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논문을 완성한 연도는 2003년과 2013년이 된다. 10년 동안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성과를 진단한 것이다.

7 한국어 교재 연구의 성과 구분 기준에 관한 논의는 방성원(2011: 594-596)을 참고하기 바란다.

2005	11	7	4	5	6	5	0	0	0	0	0	1
2006	13	10	4	4	4	12	0	1	0	0	1	4
2007	17	8	1	7	4	13	0	0	0	0	0	2
2008	24	18	2	7	15	9	0	0	1	0	0	5
2009	16	15	8	4	10	18	1	1	1	1	1	2
2010	32	14	17	4	17	14	0	0	2	0	0	1
2011	34	9	22	12	29	17	0	0	3	0	0	2
2012	25	10	15	10	19	19	1	0	0	0	0	1
2013	42	11	20	12	29	25	1	1	2	0	0	2
2014	27	2	10	0	13	3	0	1	1	0	0	0
계	248	110	103	68	146	143	3	5	11	1	3	25
	358		171		289		8		12		28	

그 결과 학위논문은 515편, 전문 학술지 논문은 352편, 총 866편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주제가 편향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 관련 연구는 교재 개발, 교재 구성 방안, 모형 개발 등의 흐름이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가 대다수(41%)를 차지하며 학술지보다 학위논문에 치우쳐 있다. “교재 개발”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77%에 달한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교재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교재 분석이나 교재 평가 등을 포함한 이론 기반의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교재 개발 연구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 키워드로 대두되듯 교재 개발 관련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이 주를 이룬다. 교재 내용 및 단원구성요소 관련 연구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주제는 여전히 언어, 문화적 요소이나 문법 기술 방안, 번역 양상, 대화문의 실제성, 삽화 등으로 이전 연구보다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기타 연구는 교재 관련해서 교재 사용 현황이나 단순히 교재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들로 변함없다.

또한 교재 개발 관련 연구 중 번역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2.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 관련 선행 연구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교재 전반이 아닌 문법 번역과정에서 용어 번역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어 문법 교재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 원작 문법 교재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로는 리득춘(2000), 손정일(2002), 왕단(2008), 최윤곤(2011) 등이 있다. 리득춘(2000, 2001)은 문법 용어 번역의 원칙을 제기하였고, 손정일(2002)은 이를 기초로 품사, 형태론, 구문론과 관련된 용어 번역에서 문제로 되는 용어들을 찾아 중국인 학습자 중심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왕단(2008)은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중국어 표준화를 위한 번역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문법 교재에 나타난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최윤곤(2011)은 주요 한국어 문법 교재 5권을 대상으로 품사 관련 용어 번역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과 한국어 문법 교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번역을 주장하면서 한·중 한국어교육계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한국어 문법 교재에서 문법 용어 번역의 표준화 내지는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중 왕단(2008)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왕단(2008)은 문법 번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문법 교재에서의 문법 용어 번역이 교재마다 다르게 된 경우와 용어의 범위가 교재마다 다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용어 번역의 이질성에 대하여 한국어 문법 체계, 특히 교육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 문법 용어 간의 대응관계에 대한 판단,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 번역자가 받게 되는 한국어 용어나 중국어 용어의 간섭과 영향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법 용어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용어가 형태도 같고 내포된 의미도 같을 경우 한국어 용어를 중국어로 직역한다. (2)

중국어에 없고 한국어에만 있는 용어는 한자 그대로 전사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한자 그대로 전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언어학이나 중국어 그리고 영어의 문법 용어를 참조하여 번역한다. (3) 중국어 문법 용어와 형태가 같지만 의미 차이가 있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 학습자의 잘못된 이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채택한다. (4) 중국어 문법 용어와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지시대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국어 용어의 사용을 선호한다.'를 제안하였다.

III. 교수자 인식 조사 및 결과

한국 내 출판 한국어 교재 및 중국어 번역 교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수자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28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성별은 남자 9명/여자 19명이었으며, 연령 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지만 40대가 9명으로 제일 많았다. 한국어 교육 경력은 5년 미만이 5명, 20년 이상이 4명으로 평균 16년에 달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가 19명(박사후 과정 1명 포함)으로 제일 많았다. 석사 혹은 과정(수료) 중인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현재 사용하는 교재 현황, 교재 선택 시 선택의 주체, 한국 출판 교재의 사용 여부, 그리고 다시 한국 출판 교재의 경우 번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질문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장단점 등을 파악하려 했다. 그 외 중국어 번역 출판 시 고려하면 좋은 점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지난 2014년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중국 천진사범대학에서 열린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에 참가한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현재 사용하는 교재

- 중국 출판 교재: 민족출판사, 복단대 출판사 간행 교재가 가장 많음
- 한국 출판 교재: 서울대학교 한국어, 연세 한국어 등

(2) 교재의 선택의 주제: 기관 선택 18, 개인 선택 10

(2-1) 개인 선택 시 기준: 학습자 수준(어휘, 문법 난이도 등)

(3) 한국에서 제작 · 출판된 한국어 교재(번역 없음)의 사용 여부:

있다 21명, 없다 7명

(3-1) 한국에서 제작 · 출판된 한국어 교재(번역 없음)의 사용의 장점과 단점

- 장점: 한국 문화 관련 및 다양한 내용의 풍부함, 실용성 높음(한국인 화자), 정보의 다양성, 재미있는 내용, 체계적인 구성 등
- 단점: 번역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움, 간단한 문법 해설, 적은 어휘의 양, 연습 유형의 부족, 지나친 한국적 상황, 말하기(구어) 위주의 수업, 중국 내 교육과정과의 비적합성 등

(3-2) 한국에서 제작 · 출판된 한국어 교재(번역 없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국 내 한국어 교재도 많으므로,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서 등

(4)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의 사용 여부:

있다 20명, 없다 8명

(4-1)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를 사용한 이유: 학과장, 학교, 주변의 추천에 따라

(4-2)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 사용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문법 설명이 있어서 좋음, 번역이 있어서 교육이 편함, 다양한 연습 유형 등
- 단점: 문법 설명이 맞지 않음, 연습 문제가 적음, 너무 어려움,

지루함 등

(5)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중국 번역 출판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한다 21명, 동의하지 않는다 7명

- 동의하는 이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체계 및 다양화에 기여, 교재의 실제성 및 실용성 면에서 찬성, 번역이 정확할 필요 있음, 수정 보완 후 번역되어야 함,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등
- 동의하지 않는 이유: 굳이 번역이 다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초급은 찬성/중급 이상은 반대, 중국 내 교재가 많으므로 필요 없음 등

(6) 중국 번역 출판 시 고려해야 할 내용

- 중국적 상황의 고려, 중국인에게 적절한 예문, 녹음 필수, 적당한 분량, 적당한 가격, 원문에 충실한 번역, 중국의 교육 현실에 맞는 내용 추가 등⁹

IV. 좋은 교재와 교재 번역

1. 좋은 교재 및 교재 평가와 번역

좋은 수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교사겠지만 교

9) 왕단(2008)에서도 ‘한국어 문법 용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문법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150명)의 답변에서도 중한국어를 전부 직역하는 방법과 한국어 문법 용어를 전부 다 중국식으로 번역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각각 6%, 22%)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직역을 위주로(한국어 문법용어와 중국어 용어의 뜻이 비슷한 경우, 중국어에는 없거나 중국어 용어와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하고 중국어로 보충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34%였다. 그리고 중국어 용어를 위주로 하고 한국어 용어에 대한 직역을 보조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28%였다.

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교재의 기능에 대해서는 노명완 외(2002: 93-96)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 기능¹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좋은 교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Cunningham(1995: 7)에서는 ELT에서 교재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을 학습자 관점에서 언급하였고,¹¹ Tomlinson(1998: 7-22) 역시 언어를 가르치는 좋은 교재의 특징으로 열여섯 가지¹²를 언급하였다.

위에서 밝힌 논의들 외에도 박영순(2003: 173-177)에서 제안된 좋은 교재 개발을 위한 원리를 통해 우리는 잠정적으로나마 좋은 교재는 ‘학습자 동기유발적/자가학습적 측면,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라는 점, 효율적인 수업 진행의 측면, 네 가지 언어기능의 효율적인 제시 방안이라는 측면 등’이 정치

-
- 10 ① 관점 반영의 기능 ② 내용 제공 및 재해석의 기능 ③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기능 ④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기능 ⑤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 ⑥ 연습을 통한 기능의 정착 기능
⑦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
- 11 ① 구어든 문어든 발표 제재의 자료가 된다. ② 학습자 연습과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의 자료를 제공한다. ③ 학습자들에게 문법, 어휘, 발음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된다.
④ 교실 언어활동을 고무시키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⑤ 교육요목을 제시한다. ⑥ 자기 주도 학습 또는 자학학습의 자료가 된다. ⑦ 자신감이 아직 없고 경험이 많지 않는 교사를 지원한다.
- 12 ① 교재는 효과를 성취해야 한다. ② 교재는 학습자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③ 교재는 학습자의 자신감 향상을 도와야 한다. ④ 교재는 학습자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⑤ 교재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노력을 요구하고 쉽게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⑥ 학습자들은 교수되어지는 요점을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⑦ 교재는 학습자들이 실제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⑧ 교재는 학습자가 입력된 언어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⑨ 교재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어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⑩ 교재는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란 보통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⑪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⑫ 교재는 학습자의 정서적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⑬ 교재는 처음 단계에서 침목의 단계를 허용해야 한다. ⑭ 교재는 학습자의 좌뇌와 우뇌 양쪽을 자극하는 지적, 심미적, 정서적 활동을 고무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⑮ 교재는 통제된 연습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⑯ 교재는 성과 피드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게 검토되어 개발된 교재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고에서는 교재의 평가 측면에서 기준들을 살피었는데, 이는 앞에서의 좋은 교재의 특징과 더불어 ‘학습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기준들 중 ‘번역’과 관련지은 만한 것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재 평가 측면에서는 W. Rivers(1981: 477-482)의 ‘교재 평가를 위한 세부 점검 사항들 (Detailed Checklist for Textbook Evaluation)’에서 제시한 45가지 문항 중 B. Appropriateness for teacher and student 부분의 8. How much is the native language used in the exercise(or in other sections of the book)? 과 같이 제시하여 번역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그 외 몇몇 연구들에서는 학습자가 자가 학습할 수 있는가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암시적으로 번역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좋은 교재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서나, 교재 평가적 측면 모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두 연구자만이 ‘번역의 제공’이 좋은 교재의 조건이 되는지, 교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분명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번역된 교재의 분석 및 이를 통한 제언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해 개발된 교재들, 특히 한국 대학의 여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발되고 출판된 교재들 중 중국어로 번역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경우, 좋은 교재라는 측면과 교재의 내용적, 구성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먼저 교재의 번역의 현황을 살피고 번역의 개념 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다루고 나아가 번역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한 후 번역된 교재가 갖는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내 출판 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현황

현재(2014년 4월) 한국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교재가 중국에서 번역 출간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번역 출간 현황

연번	교재명	출판년도	중국출판사	한국 기관
1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1-4권 외국인을 위한 중급 한국어 1-4권 외국인을 위한 고급 한국어 1-4권	2009	중국북경대학교 출판부	선문대
2	연세 한국어	2007	세계도서출판사	연세대
3	1) 韩国庆熙大学经典教材 韩国语会话技巧与实践 韩国语阅读教程实践 韩国语写作教程 2) 新标准韩国语 同步练习册 初级下 同步练习册 初级上 同步练习册 中级下 同步练习册 中级上 3) 新标准韩国语 初级下, 初级上 中级下, 中级上 高级下, 高级上	2009 2006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경희대
4	(구) 한국어 1권~4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1, 2권 단기교재 Active Korean 1, 2, 4권 (신) 서울대한국어 1, 2권	2008 2011 2012 2013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臺灣日月文化社	서울대
5	초급한국어교재	2009	세계도서출판사	국립국어원
6	이화한국어 이화한국어 1-1, 1-2, 2-1, 2-2	2010 2010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대
7	배우기 쉬운 한국어	2011	북경언어대학출판사	성균관대
8	고려대학 한국어 1, 2권	2013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고려대
9	신개념 한국어	2014	북경대학교출판사	부산외대
10	(구)서강한국어 1권~6권	2008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서강대
11	주편한국(走遍韓國); 8권 (학생용-4권/교사용지도서-4권) 한국어법독교정(韓國語泛讀教程); 4권 (학생용-2권/교사용지도서-2권)	2007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신라대

3. 교재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논점들

1) 교재 번역의 개념과 범위 등

번역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으로 되어 있고, 김성식(2011: 107-108)에 따르면 “원천 언어 (source language)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바꾸는 과정, 혹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어 자유번역(free translation)과 직역(literal translation)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이다. 등가 번역(transliteration equivalence)과 번역에서의 전환(shift)¹³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의 실제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의 실제를 살펴기 위해 위에서 표로 제시한 다양한 교재 중 4~5기관의 교재를 대상으로 번역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결국은 의역(자유번역)이든 직역이든 교재별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때로는 직역을, 때로는 의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은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원천 교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입장에서의 직역이 많았다는 점 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의 영역으로는 결국 어휘, 문법, 문화, 그리고 지시문이나 교재 각 과별 하위 부문의 명칭(기능적인 면이든, 단순 장면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든)으로 나뉘어 실제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3 번역에서 전환(shift)는 두 언어의 언어적 체계, 문화, 문체 등의 다양한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번역자가 목표 텍스트의 자연스러움과 의사소통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원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미학적, 지적 가치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식, 2011: 109 인용).

14 본고에서 제시되는 여러 예시들 중 어휘, 문화, 교재 내 지시문 부분은 한국어교육 전공

(1) 어휘적 측면

① 어휘 의미 범위의 문제

- **미용사**: 미용사를 ‘美容师, 美发师’로 번역하였는데, 중국에서 ‘美容师’는 피부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고 ‘美发师’는 머리를 잘라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아가씨**: 일반 의미의 ‘아가씨’를 주제로 한 시에서 ‘아가씨’를 ‘小姐’로 번역하였다. ‘小姐’는 ‘아가씨’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외에 속된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시어에서는 ‘姑娘’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둘 다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화용적, 사회언어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번역해야 한다.)

② 오역의 문제

- **극장**: 공연을 보는 장소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剧场’이 아닌 ‘电影院(영화관)’으로 번역하였다.
- **김치찌개/삼계탕을 먹다**: ‘먹다’를 ‘喝(마시다)’로 번역하였다. 이는 김치찌개와 삼계탕을 중국어로 각각 ‘泡菜汤, 参鸡汤’으로 번역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국물에 해당하는 ‘汤’을 ‘마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 ‘吃(먹다)’가 아닌 ‘喝(마시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하루에**: 문맥상 맞는 중국어는 ‘一天’인데 ‘每天(매일)’로 번역하였다.

③ 1:1 대응이 안 되는 표현들

- **(3박4일) 동안**: 동안을 ‘期间, 时间’으로 번역하였는데 ‘동안’은 중국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 **나중에**: 대화문 ‘지금 지하철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에서 ‘나중에’를 ‘以后’로 번역하였다. ‘나중에’는 보통 ‘하루 안일 경우(过一会儿)’와 ‘하루 를 넘을 경우(以后)’로 대응된다.

박사과정생 4인(중국인)이 교차하여 분석하고 찾아낸 예들인데 이들 중국인 박사과정생들 사이에도 의견차가 있었다. 따라서 예를 제시한 것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아울러 문법 부분의 예들은 손정일(2002), 왕단(2008) 등의 논의에서 가져온 것들임을 밝힌다.

- **반갑다**: 인사말에서 ‘반갑다’를 ‘高兴’으로 번역하였다. 중국어에서 ‘高兴’이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 등 형용사로도 쓰이고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등 동사로도 쓰인다. 따라서 인사말의 반갑다의 번역어인 ‘高兴’ 옆에 (인사말) 정도로 표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문법적인 측면

왕단(2008)의 논의에서 문법 번역과 관련하여 지적된 주요 내용 및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1] 문법교재에서의 문법 용어 번역의 문제점

(1) 용어 번역이 교재마다 다른 경우

- 1) 두 가지 용어로 번역된 경우(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적)

접사(詞綴, 接詞), 의존명사(不完全名詞, 依存名詞)

- 2) 세 가지 용어로 번역된 경우

절(小句, 子句, 節), 구(詞組, 短語, 句), 용언(謂詞, 用詞, 用言), 보조사(添意詞綴, 補助詞, 添意助詞), 어미(謂詞詞綴, 詞尾, 語尾)

- 3) 네 가지로 번역된 경우

선어말어미(非語末詞尾, 前置語尾, 先詞末詞尾, 先語末語尾)

- 4) 기타: 관형사형어미(體詞形詞綴, 名詞性詞尾, 名詞型語尾, 名詞型轉類語尾, 名詞形詞尾, 名詞形語尾, 體詞形詞尾)

(2) 용어의 범위가 교재마다 다른 경우

- 1) ‘안은 문장’을 A교재는 홀문장으로, B교재는 겹문장으로, C교재는 包孕句로 번역하여 따로 설정

- 2) 한국어의 9품사 중의 조사를 품사에서 제외시키고 단위명사, 의성의태어, 연결 부사를 ‘量詞, 象徵詞, 連詞’로 각각 분류한 교재도 있었음. 한국어의 명사, 부사보다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다른 교재의 용어와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3) 한국어 직역이 중국어 문법 용어와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보어(補語)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이고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02), 중국어의 보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동사, 구 등으로 구성되어 홀문장 중에 중심어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을 말한다(진학총2006). 이 보어는 중국어의 ‘補語’와 용어가 같지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사용은 학습자들의 이해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4) 서로 다른 문법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번역

예: 词缀: (접사, 조사, 어미)

(5) 한 교재 안에서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예: 어미: 词尾, 语尾

다만, 이화여대 교재 등에서 문법 설명 중 ‘-이에요, -예요’에 대한 설명에서 단순히 본 교재 설명을 직역하지 않고 중국어의 <‘是’와 같다>라는 설명을 번역에 추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문화적 측면

- **온돌방:** 대부분 교재에서는 ‘暖炕’으로 일반화된 번역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일부 교재에서는 ‘有地热的房间(바닥이 따듯한 방)’으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어느 게 나은지, 둘 다 괜찮은지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 **시물놀이:** ‘놀이’를 ‘游戏’(유희)로 번역했는데 사물놀이의 경우 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상하다.

(4) 기타

① 지시어 오역¹⁵

15 지시어 번역에서의 문제점으로 김재숙(2012)은 교육용어인 ‘본문, 어휘 및 표현, 과제’를 ‘范文(예문), 词汇(표현 누락), 任务(임무)’로 일반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 **말하기 과제(说话任务), 과제(任务), 활동(活动)** 등의 번역은 일반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 **전화번호를 묻는 대화 듣기**: ‘回答电话号码的对话’로 번역되었는데 이상하고, ‘듣기’는 번역하지 않았다.
- **하루 일과 말하기**: ‘话说一天的生活’로 번역되었는데 ‘말하기’를 ‘话说’로 번역하였다.

② 지시문 오역

- **찾아보세요**: 텍스트 안에서 어떤 표현을 찾아보라는 지시문이므로 ‘找一找’가 적절한데 ‘查找’나 ‘寻找’로 번역하였다.
- **시간을 중복해서 쓰는 것**: ‘使用多个时间表达方式时’로 번역했지만 직역한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③ 과도한 번역

일부 교재에서 본문의 번역문을 본문 옆에 제시하거나 문법 예문 전체를 번역하였는데 한국어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일부 교재는 과제에서 이미 배운 표현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혹은 더 넓게 현지어 번역)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거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본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의 번역

은 좋은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교재 평가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숙련도별로 교재 안에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갖는 장 단점은 다를 것이며, 교수자 입장과 학습자 입장에서도 번역은 유익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과정과의 검토를 통해 번역 제공 여부와 번역 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초급이라면 문법과 어휘에 대해 해당 과의 상황에 맞게 1:1번역이 중요할 수 있고, 중고급이라면 문법의 경우는 용법에, 어휘라면 기본의미 - 확대의미, 중국어 유의어와의 대조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2. 번역을 제공할 때, 설명 언어와 번역의 구별이 명확해야 한다. 이미 교재 안에서의 문법 설명문이나 예문의 의미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 언어는 메타언어이다. 그런데 그 메타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문법의 경우, 두 언어 사이의 용어의 차이, 문법 체계의 차이, 의미나 기능의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조언어학적인 충분한 지식이 없는 번역은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의 번역이 중요하므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번역이 중요하다. 메타언어의 번역은 중고급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3.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비교문화적 지식을 전제로 번역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어휘나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표현들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들이 많다. 직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의역조차도 불가능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내용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4. 언어 교재의 경우, 일반 도서들과 달리 교재를 사용하는 기관들 간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목적들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를 특수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며, 1일 4시간, 1주 5일 총 20시간씩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과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에서 일방적인, 무비판적인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조사나 비교 없이 교재를 번역하고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문을 번역할 필요도 없고, 학습자 언어 체계에 맞지 않는 문법 용어의 번역이나 유사의미를 갖지 않는 어휘의 번역을 무리하게 직역해서도 안 되며, 교수자 또는 학습자가 ‘번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인식이 번역에 선행되어야 한다.

6. 한국 출판 교재가 갖는 교재의 실제성이나 실용성, 한국인에 의한 녹음 등이 번역 교재의 장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용이성(teachability)보다는 학습용이성(learnability)에 초점이 맞춰진 번역이 되어야 한다.

7. 당연한 말이지만 번역의 정확성, 일관성은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여럿이 나누어 제각각의 용어로 일관성 없이 번역해서는 안 된다.

8. 그 외, 중국어 번역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법 용어의 통일이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두 언어의 문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조속한 시일 안에 표준화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14. 7. 29.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7.
- 김재욱(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의 번역 양상 문제」, 『통번역학연구』 16, pp. 39-64.
- 김정은(2005), 「단원의 구성과 전체적 유기성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교육』 12-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 373-403.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리득춘(2000), 「중국인용 한국어 교재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pp. 161-171.
- _____ (2001), 「한국어 표준문법」의 문법술어에 대하여,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경제문화연구소.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69-188.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pp. 591-626.
- 배두본(2008), 『영어 교재론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파주: 태학사.
- 손정일(2002), 「한국어 문법 한어 용어 통일을 위한 제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pp. 119-137.
- _____ (2005), 「조선어 문법용어 한어표준화 재론」,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VI』, 태학사.
- 안주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pp. 279-307.
- 왕 단(2008),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중국어 표준화 연구」, 『한글』 282, pp. 277-316.
- 이지영(2005), 「교재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 최윤곤(2011),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의 교재 용어 분석(1) — 품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pp. 577-600.
- Cunningsworth, A.(1995), *Choose your Coursebook*, Macmillan Heinemann.
- Rivers, Wilga M.(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omlinson, B. (Ed.)(1998),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어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최정순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를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며,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한국어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과학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을 성립시키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발전 속에서 하위 여러 분야들 또한 발전하였지만 특히 교재 분야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 1864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출판된 한국어교재는 3,400여권에 달한다. 다양한 교재들이 국가별로, 목적별로, 시기별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면서 개발되고 출판되어 왔는데, 본 발표는 한국어교육용 교재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에 집중하여 다룰 것이다. 특히 중국어 번역이 제공되는 (혹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한국어 교재 관련 연구사, 중국인 학자에 의한 문법 용어의 번역에 대한 연구사 등을 선행 연구로 정리 제시할 것이다. 특히 중국 현지 한국어교수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번역 교재 및 한국 출판 교재들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끝으로 좋은 교재의 조건과 교재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번역에 대해 짧

게 언급하고, 한국 출판 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교재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주요 번역 교재들의 분석을 통해 교재에서 보이는 어휘적, 문법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번역들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교재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할 것이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 교재 평가, 번역

ABSTRACT

What do we have to consider in translating Korean Textbook published in Korean into Chinese?

Choe Jeongsoon

The modern conc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founded in 1945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de such a remarkable development over the years. In the proces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did not simply focus o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to foreigners. Instead, it also established a whole new department in Educational Linguistics Studies, which is being actively studied and developed everyday by researchers and students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s.

Among the many successful subdivisions und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textbooks have made an outstanding growth. From 1864 to 2009, there were more than 3,400 textbooks published. Various different textbooks were published for different purpos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in different languages. For today’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which were written and published in Korean.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efine and suggest any significant and preferabl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ranslation of Korean into Chinese.

For this purpose, I will present the research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hinese scholar’s research on translation of Chinese grammatical terms as preceding researches. In addition, I will also present the analysis of surveys given to the professo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on their use of textbooks to introduce their ideas on translated textbooks.

Lastly, I will briefly mention about conditions for a good textbook and propose the evaluations of current Chinese translation in Korean

textbooks. By using various examples from the major textbooks, I will point out the incorrect translations expressed in linguistic, grammatical, and cultural aspects. Based on these points, I will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ranslating the textbooks into Chinese.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Textbook, Chinese Translation in Korean Textbook, Textbook Evaluation, Translation